

국별 리포트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488천 km ²	G D P	77억 달러(2009년)
인구	4.9백만 명(2009년)	1 인 당 G D P	3,972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urkmen Manat
대외정책	중국, EU 등과 협력 증진	환율(달러당)	2.9(2009년)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에 이은 구소련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확인매장량 8.1조 m³)이며, 원유 확인매장량도 6억 배럴 수준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7년 2월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니야조프 전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며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요원한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러시아 외의 가스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이란 및 EU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스 수출량이 확대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11.4	11.6	10.5	6.1	9.4
재정수지/GDP	14.8	17.0	35.4	16.7	7.7
소비자물가상승률	7.1	8.6	8.9	0.1	4.6

자료: OECD CRAM, EIU.

□ 경제성장률은 성장세 회복

-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은 4월에 발생한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사태로 인한 가스 생산 감소 및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6.1%를 기록하며 둔화세를 나타냄.
- 2010년에는 대 러시아 가스공급 재개, 대 이란 가스수출 증가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어 9.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는 다소 상승

-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조치 등으로 0.1% 수준을 기록했음. 그러나 이는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제한(price cap) 도입을 통해 조정된 수치로, 실제 인플레이션 수준은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0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 국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다소 상승한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 감소

-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생산 및 수출은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성 지출은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인 16.7%를 나타냄.
- 2010년에는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이 재개되고, 이란 및 중국 시장 등으로 가스공급이 확대되어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했으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7.7%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

2. 경제구조·정책

□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수입이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1990년대에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했던 면화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어 수출 비중이 3% 수준으로 하락함.(2001년 기준)

□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 유지

- 베르디무하메도프(G. Berdymukhamedov) 대통령은 2007년 2월 취임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가격 통제 및 전력 무상공급 등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육상 가스전의 경우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sharing Agreement: PSA)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없고, 국영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분야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2009년 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8.1조 m³(전 세계 매장량의 4.3%)로 러시아에 이어 구소련 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 수준임.

□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 도입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계 석유·가스회사들의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음.
- 2009년 이후 중국, 러시아, 독일 에너지 기업들이 PSA를 통해 카스피해의 해상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환율 단일화 조치 및 화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실시

- 현 정부 집권 이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환율 체계 개편을 통해 통계 작성시 사용되는 공식환율(달러당 5,200마넛)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공식환율(달러당 24,000마넛)간의 차이를 점차 축소해 왔으며, 2008년 6월 1일부터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을 통합해 달러당 14,250마넛으로 환율을 단일화했음.
-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9. 1. 1자로 기존 5,000마넛을 1마넛으로 변경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음. IMF는 이러한 조치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및 금융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환영함.

□ 예산법 개정 및 IFRS 도입 등 경제투명성 제고 노력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이후 공공 재정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EU와 공동으로 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통해 경제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FRS는 2011년 말까지 투르크메니스탄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될 예정임.

□ 민간 경제 분야 개발 노력 및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민간 경제 분야 개발이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경제 개발 지속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등록 절차 및 세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3,351	4,037	3,560	-2,981	-981
경 상 수 지 / GDP	15.7	15.5	18.7	-16.1	-4.9
상 품 수 지	4,597	5,334	6,423	875	1,915
수 출	7,155	9,114	11,786	8,946	9,502
수 입	2,558	3,780	5,363	8,071	7,587
외 환 보 유 액	8,059	13,222	16,713	18,960	n.a.
총 외 채 잔 액	886	743	638	526	1,799
총 외 채 잔 액 / GDP	4.1	2.9	3.4	2.8	9.1
D . S . R .	3.9	3.0	1.7	1.9	3.7

자료: OECD CRAM, EIU.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06~08년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09년 대 러시아 가스수출 중단, 국제유가 하락 및 상품 수입 증가에 따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약 30억 달러, GDP 대비 -16.2%)를 기록했음.
- 2010년에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공급 재개 및 가스 수출처 다변화로 경상수지 적자 폭은 다소 축소된 약 10억 달러(GDP 대비 -4.9%)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소폭 증가세

- 2009년 가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 190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18개월 분)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외채규모 대폭 증가

-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총외채잔액 수준이 2006~09년 5억~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 18억 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 규모 급감으로 인해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0년 전년의 5.5%에서 크게 상승한 17.6% 수준임.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총외채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9년 각각 2.8% 및 1.9%에서 2010년 9.1% 및 3.7%로 상승했음.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2007년 집권 이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국정 장악

- 2007년 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부총리이자 보건부 장관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의회(Khalk Maslakhaty) 및 엘리트 집단의 절대적인 지지와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니야조프(S. Niyazov)와 유사한 대통령 중심의 철권통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금년 5월 유일한 정당이던 민주당(구 공산당) 외에 농부당(Farmers' Party) 창당을 승인했으나 농부당은 실질적으로 현 정권의 엄격한 통제 하에 창설된 것으로 복수정당 제도 인정이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외관을 갖추하고자 계획된 것임.
- 2010년 9월 최초로 민간 언론사에 의해 신문(Rysgal)이 발간되었으나 Rysgal은 2008년 정부의 후원 하에 창설된 기업가 연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 반대세력 및 언론통제를 통한 사회 안정 유지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야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을 주축으로 반대 세력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사회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어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음

-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15년간 지속되었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 또한 유사한 형태의 통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고 국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불안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국제 관계

□ 러시아는 중요한 협력 상대로서의 지위 유지

- 2009년 4월 발생한 가스관 사고로 대 러시아 가스 수출이 중단되는 등 러시아와는 가스 수출 가격과 규모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러시아 외의 가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러시아의 입장에서 고비용이 요구되는 자국 가스전 개발에 비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양국간 잦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당분간 중요한 상호협력 상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 2006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07년 8월 중국 국영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주도로 총 7,000km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 건설에 착수해 2009년 12월부터 연간 30억~50억 m³의 가스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30년까지 이 물량을 연간 400억 m³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이란과의 가스수출 물량 증대

- 2010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간 두 번째 가스관이 개통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이란 가스공급 물량은 연간 140억 m³로 크게 증가해 2010~11년에는 이란이 투르크메니스탄 제1의 가스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EU 등 서방과의 협력 확대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도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분간 러시아와 즉각적인 적대관계를 촉발할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현황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08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한 성장 잠재력과 베르디무하메도프 신 정부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 등을 들어 국가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 Moody's는 2010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2002년 1월에 부여했던 등급(B2)을 철회했으며, S&P와 Fitch는 등급을 부여한 바 없음.

□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중기 인수 가능
- ECGD: 단기인수 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Hermes: 제약조건이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과거 파리클럽과의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외채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음.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없음

- 2010년 6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7.2백만 달러로 이 중 연체금액은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투르크메니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10.1~11	주요품목
수 출	6,884	22,364	66,262	89,546	자동차, 레일 및 철구조물 등
수 입	696	177	749	395	의류, 섬유제품 등
합 계	7,580	22,541	67,011	89,941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1992. 2. 7.(북한과는 1992. 2. 10. 수교)

□ 주요 협정: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항공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이상 2008)

□ 양국간 교역규모

- 양국은 1992년 2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연도별 교역규모의 편차가 심했음.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출규모는 2008년 2,236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 6,626만 달러, 2010년 8,955만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 한편, 수입규모는 2008년 18만 달러, 2009년 75만 달러, 2010년 40만 달러를 기록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레일 및 철구조물 등이며 수입품목은 의류, 섬유제품 등임.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해외직접투자 규모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010년 9월 말 기준 3만 달러(2건)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V. 종합의견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0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 및 가스 수출상대국 다변화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및 대 러시아 가스 수출 감소로 인해 재정수지 흑자폭이 감소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07년 2월 취임 이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반대세력과 언론 통제를 통해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사회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가스 수출대상국 다변화에 집중해 러시아 외 중국, 이란, EU 등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있음.
- 다만,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가 총수출에 80%에 달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개선과 경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것으로 분석됨.

책임조사역 허정욱 (☎02-3779-6653)
E-mail : johuh@koreaexim.go.kr